



쌍용컴퓨터 하드웨어시장 진출

쌍용컴퓨터(대표 : 朴炳哲)는 이달부터 지금까지의 SW 위주의 사업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체제로의 전환과 아울러 자체 하드웨어 브랜드를 가진 컴퓨터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同社は 우선 1단계로 미국의 Intel사에서 공급하는 마더·보드(mother board)를 채택, 고객들에게 PC를 공급할 계획을 갖춰놓고 오는 8월말이나 9월초에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스템연구소(SIST)에 이미 별도의 HW개발팀을 구성, 오는 '90년을 목표로 독자적인 마더·보드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HW사업은 쌍용그룹이 이미 올 연초에 발표한 「쌍용그룹 2000년대 장기계획」에서 이미 암시되었던 내용으로서, 당시 쌍용그룹은 금융, 레저, 자동차와 아울러 컴퓨터 분야를 미래 중점 육성부문으로 점차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同社도 이러한 그룹의 육성 의지와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HW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전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同社は 이미 OA분야에서는 IBM, FA사업에서는 HP, DEC 등의 HW전문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SW 솔루션(Solution)을 결합해 고객에게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객의 욕구가 점차 한 업체의 책임하에 모든 것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동사는 이러한 외부의 HW소싱(Sourcing)만으로는 고객들

에게 토털 솔루션이란 측면에서의 충분한 만족과 해결책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SW기술이나 상품개발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경험하여 왔었다.

同社は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회사내 각종 SW제품의 특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더욱 우수한 SW를 개발해 나가기 위한 타겟 머신(Target Machine) 개발 즉, 쌍용자체의 HW가 더욱 절실한 때를 맞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1차적으로 이달에 발표하게 되는 모델은 32PC 두가지 종류로, 16Mhz의 처리속도를 가진 「모델 386/AX」와 25 Mhz의 처리속도를 가진 「모델 386/UX」이다. 이에 이어서 동사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20Mhz의 「모델 386/MX」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동사는 FA용 HW부문에 있어서도 공장자동화용 실시간처리 셀·컨트롤러(RTCC; Real Time Cell Controller)의 개발을 위해 지난 6월 전자통신연구소(ETRI)와 공동개발에 관한 계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했다. 동사는 미니 컴퓨터급인 RTAM(Real Time Area Manager)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낼 계획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HW까지 생산하게 되는 종합 시스템 하우스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